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 및 塼築窯 문제

이 희 관*

Ⅰ. 머리말
Ⅱ. "太平壬戌"銘 瓦片과 龍溪里窯의 관계
Ⅲ. 龍溪里窯에서의 塼築窯의 實在 여부
Ⅳ. "太平壬戌"銘 瓦片과 塼築窯가 제기하는 初期靑磁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지난 1970년대 말 한국의 初期靑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초기청자의 개시시기와 성립과정 그리고 그 양상, 初期靑磁窯의 성격, 초기청자와 중국 越州窯 청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성과들이 이를 증명한다.[1]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初期靑磁窯址ㅡ初期白磁窯址를

* 湖林博物館 학예연구실장.

포함하여 一의 발굴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초기청자에 대한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에서 窯址 발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龍仁市 西里窯(1984-1988)와[2] 始興市 芳山大窯(1997-1998)를[3] 비롯하여 高敞郡 龍溪里窯(1983),[4] 白川郡 圓山里窯(1989-1991),[5] 驪州郡 中岩里窯(2001),[6] 康津郡 三興里窯(2001-2002)[7] 등이 이 시기에 발굴되었는데, 특히 西里窯와 芳山大窯의 정밀하고도 체계적인 발굴 성과는 한국 초기청자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초기청자요지의 발굴 결과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1983년에 발굴된 龍溪里窯址이다. 龍溪里窯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들의 境界 地域에서 窯業을 시작하였으며, 양자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그러므로 龍溪里窯址의 발굴 성과는 특히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의 상호 영향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龍溪里窯址의 발굴 결과 자체에 대한 이해의 差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초기청자의 연구와

---

1 이제까지의 초기청자에 대한 연구성과는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硏究』(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2), pp.3-6에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각별히 초기청자의 개시시기 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는 李喜寬, 「韓國 初期靑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一韓國 靑磁 製作의 開始時期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美術史學硏究』 237(韓國美術史學會, 2003), pp.6-7을 참조하라.

2 西里窯址는 1984-1988년에 3차에 걸쳐 발굴되었는데, 1차 발굴 결과만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李鍾宣 外, 『龍仁 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三星美術文化財團 · 湖巖美術館, 1987). 2 · 3차 발굴 결과는 보고서가 곧 간행될 예정이다. 다만 金載悅과 田勝昌의 논문에서 그 대략적인 내용이 소개되었다.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韓國美術史學會, 1988); 「龍仁 初期 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 『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1회 東垣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0);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용인시 · 용인문화원, 1998); 田勝昌,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 · 용인문화원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3 崔健 · 李鍾玟 · 張起熏, 『芳山大窯』(海剛陶磁美術館 · 京畿道 始興市, 2001).

4 鄭明鎬 · 尹龍二, 『高敞雅山댐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圓光大學校 馬韓 · 百濟文化硏究所 · 韓國電力公社 靈光原子力建設事業所, 1985).

5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기가마터 발굴 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 1991년 제2호(사회과학출판사) 및 「圓山里靑磁窯址を通じて見たわが國初期磁器發展相について」, 『高句麗 · 渤海と古代日本』(雄山閣出版, 1993).

6 中岩里窯址의 발굴 결과는 아직 보고서로 간행되지 않았으며, 그 대략적인 내용이 백종오 · 이헌재 · 김병희,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發掘의 成果와 意義」, 『京畿道博物館 年譜』 5(경기도박물관, 2002)에 소개되어 있다.

7 (財)湖南文化財硏究院 · 國立光州博物館, 『강진 삼흥지구 저수지 숭상사업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2002).

8 李鍾玟, 앞의 논문, pp.146-149 참조.

관련하여 龍溪里窯址의 발굴 성과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논란의 핵심은 이 窯址를 발굴할 때 출토된 "太平壬戌"銘 瓦片과, 그때 확인되었다고 하는 塼築窯의 遺構와 관련된 것이다.

"太平壬戌"銘 瓦片은 龍溪里窯址와 근접한 建物址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瓦片에 보이는 것과 같은 魚骨文을 가진 瓦片이 窯址에서도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 상황을 토대로 발굴보고자는 龍溪里窯가 太平 壬戌年(1022)을 전후한 시기에 운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9]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문제의 瓦片이 출토된 建物址와 窯址의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太平壬戌"銘 瓦片을 근거로 龍溪里窯의 운영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10] 요컨대 "太平壬戌"銘 瓦片이 龍溪里窯의 編年資料로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크게 갈려 있는 것이다.

한편, 龍溪里窯址의 발굴보고자는 이 窯를 약간의 匣鉢과 石材를 혼용하여 粘土로 축조한 土築窯로 파악하였다.[11] 하지만 어떤 학자는 龍溪里窯址의 발굴 과정에서 土築窯의 下部에서 方形塼으로 축조한 塼築窯로 보이는 窯構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12] 이 주장에 따르면 龍溪里窯도 龍仁市 西里窯와 마찬가지로 중서부지방의 築窯 방식이었던 塼築窯로 窯業을 시작하여 남서부지방의 築窯 방식인 土築窯로 전환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이 점은 龍溪里窯址를 再發掘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기본적으로 龍溪里窯址의 발굴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資料的 검토에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太平壬戌"銘 瓦片의 출토 상황과 그것이 출토된 建物址와 窯址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塼築窯 遺構의 實在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檢證 등은 龍溪里窯址의 발굴 결과를 통하여 초기청자를 연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기초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란의 핵심인 이 의문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어느 한편에 서서, 즉 龍溪里窯

9 鄭明鎬 · 尹龍二, 앞의 책, pp.157-161.

10 崔健, 「高麗靑磁의 發生問題－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 創刊號(한국미술연구소, 1995), pp.276-277의 註 11 참조.

11 鄭明鎬 · 尹龍二, 앞의 책, pp.81-87.

12 崔健, 앞의 논문, pp.276-277의 註 11 참조.

址의 발굴 결과에 대한 어느 한쪽의 이해를 토대로 초기청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 초기청자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와 같은 문제를 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어느 쪽의 입장에 서더라도 그것은 龍溪里窯址의 발굴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결여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龍溪里窯址를 발굴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한 연구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적 검토의 미진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龍溪里窯와 관련된, 문제의 두 가지 의문점을 해명하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太平壬戌"銘 瓦片과 塼築窯의 존재 여부 문제를 당시의 발굴 상황에 견주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太平壬戌"銘 瓦片의 사료적 가치와 龍溪里窯의 구조 문제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믿는다. 아울러 "太平壬戌"銘 瓦片과 塼築窯가 제기하는 초기청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龍溪里窯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연구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II. "太平壬戌"銘 瓦片과 龍溪里窯의 관계

龍溪里窯址는 1983년 3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圓光大學校 馬韓 · 百濟文化硏究所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발굴되기 전 龍溪里窯址는 모두 4개소의 가마 폐기물 퇴적층이 東西 방향으로 丘陵을 형성하고 있었다. 가마 遺構는 남쪽으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堆積丘陵의 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세 개의 가마가 上 · 下로 중첩하여 축조되었다. 한편, 퇴적구릉의 西便은 평평한 垈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建物址가 확인되었다도1. 문제의 "太平壬戌"銘 瓦片은 이 건물지들 가운데 'ㄱ'字 모양으로 연결된 南便建物址와 東便I建物址에서 수습되었다.[13]

이 瓦片은 平瓦의 파편으로, 윗부분은 그 대부분이 결실되었고, 아랫부분도 일부 결실되었다도2.[14] 이 瓦片의 등쪽에는 文樣과 銘文이 찍혀 있는데, 윗부분에는 비교적 가는 魚骨

13 鄭明鎬 · 尹龍二, 앞의 책, pp.157-161.

14 龍溪里窯址의 발굴보고서에는 이 瓦片의 사진이나 도면이 실려 있지 않고, 『博物館圖錄』(圓光大學校 博物館,

도 1 龍溪里窯址 發掘 全景. 앞부분이 建物址이고 뒷부분이 窯址이다.

도 2 "太平壬戌"銘 瓦片, 圓光大學校博物館

文이, 아랫부분에는 명문이 있다. 명문은 長方形의 구획 안에 찍혀 있다. 이 瓦片에는 명문이 있는 5개의 구획이 남아 있지만, 구획의 일부가 결실되거나 명문이 확실하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오른쪽에서 첫 번째 구획에서는 밑부분이 결실되어 "壬"字만이 확인된다. 두 번째 구획에 있는 명문은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는데, 다만 첫 글자가 '太' 인지 '大' 인지 약간 의문이 남지만 '太' 와 '大' 는 흔히 혼용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아래 글자는 '平' 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명문은 '太平' 으로 판독된다. 세 번째 구획의 첫 글자는 '壬' 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아래의 글자는 박락이 심하여 판독할 수가 없으므로 未詳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즉 이 명문은 '壬' 이 되는 셈이다. 네 번째 구획에서는 '太' 또는 '大' 字가 확인되며, 다섯 번째 구획에는 '壬' 자의 획 일부가 남아 있다.

'太平' 은 遼 成宗代의 年號이며, '壬' 은 太平 연간의 干支가 분명하다. 太平 연간에 '壬' 으로 시작하는 干支를 가진 해는 太平 2년(1022) 壬戌年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제의 명문을 발굴보고자가 '太平壬戌' 로 推讀한 것은 타당하다. 즉 명문이 있는 구획에는 '太平' 과 '壬戌' 이 번갈아 찍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발굴보고자에 따르면, "太平壬戌"銘 瓦片의 것과 같은 魚骨文을 가진 瓦片이 窯

1996), p.219에 사진이, 『高敞郡의 역사문물』(국립전주박물관, 1999), pp.47-48에 拓本과 사진이 실려 있다.

址에서도 출토되었다고 한다. 즉 上·下로 중첩된 세 개의 가마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가마(가마B) 봉통부의 불통 부분의 北壁에서 "太平壬戌"銘 瓦片에 보이는 것과 같은 魚骨文을 가진 平瓦片이 함께 섞여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龍溪里窯址의 발굴보고자는 "太平壬戌"銘 瓦片의 魚骨文과 窯址(가마B)에서 확인된 瓦片의 魚骨文이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時期的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龍溪里窯가 1022년을 전후한 시기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15]

하지만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단지 "太平壬戌"銘 瓦片과 같은 魚骨文을 가진 瓦片이 窯址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太平壬戌"銘 瓦片을 龍溪里窯의 編年資料로 삼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龍溪里窯址를 발굴할 때 출토된 문양이 있는 瓦片의 대부분이 魚骨文일 뿐만 아니라, 魚骨文 자체가 고려시대를 통틀어 가장 일반적인 기와 문양으로서,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는 魚骨文을 기준으로 하여 기와를 編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龍溪里窯址와 建物址－"太平壬戌"銘 瓦片이 발견된 南便建物址와 東便I建物址－사이에 연결된 層位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16] 요컨대 "太平壬戌"銘 瓦片이 출토된 건물지와 龍溪里窯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太平壬戌"銘 瓦片과 龍溪里窯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양자의 관련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각이 미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보아야 할 것은 문제의 "太平壬戌"銘 瓦片이 출토된 南便建物址와 東便I建物址의 건물이 언제 축조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이 건물이 龍溪里窯가 운영되던 시기에 축조되었다면, 그 건물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龍溪里窯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窯와 관련이 없는 건물을 청자를 생산하고 있던 窯와 그렇게 근접한 위치에 축조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부자연스러운 일로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太平壬戌"銘 瓦片이 출토된 南便建物址 및 東便I建物址와 龍溪里窯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곧 그 건물이 龍溪里窯가 운영되던 시기에 축조되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는 일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먼저 가마B의 불통부에서 확인된 魚骨文 瓦片에 주목할 필

15 鄭明鎬·尹龍二, 앞의 책, p.161.

16 崔健, 앞의 논문, pp.276-277의 註 11 참조.

요가 있다. 龍溪里窯址에서는 6,450여 점의 瓦片들이 조사되었는데, 南便建物址와 東便I建物址의 담장 石列 안에서 주로 출토되었다.[17] 발굴된 建物址 지역에서 기와집(瓦家)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 建物址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가마B에서 발견된 瓦片도 "太平壬戌"銘 瓦片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서 사용된 후 폐기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가마B에서 출토된 瓦片이 구체적으로 언제 폐기되어 가마B를 축조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南便建物과 東便I建物은 늦어도 龍溪里窯가 廢窯되기 전에 축조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龍溪里窯가 開窯하기 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여도 좋다. 이 건물지의 下層에서 용계리요의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건물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18] 요컨대 가마B에서 발견된 瓦片을 통하여 볼 때, "太平壬戌"銘 瓦片이 출토된 南便建物址와 東便I建物址의 건물은 龍溪里窯가 운영되고 있던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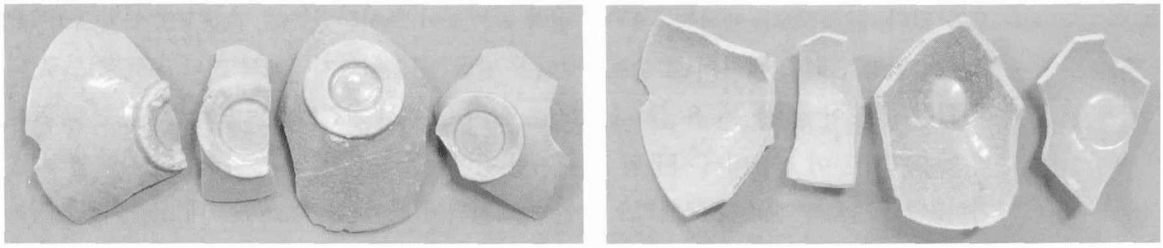
이러한 가능성은 龍溪里窯에서 출토된 청자들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 龍溪里窯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青磁片들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해무리굽碗이다. 龍溪里窯址에서는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은 극소수만이 확인될 뿐이다도3. 그것들의 대부분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작된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들이다도4.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는 底徑이 크고 굽폭도 넓은 것들도 있고, 저경이 작고 굽폭이 좁은 편이며 圓刻의 직경 또한 작은 것들도 있다.[19] 시기적으로 전자가 앞서며, 후자가 늦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재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절대적인 편년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것의 上限과 下限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지만, 일본에서 출토된 해무리굽碗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博多와 大宰府를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해무리굽碗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들로서,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기준으로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上限을 추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들은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下限을 추정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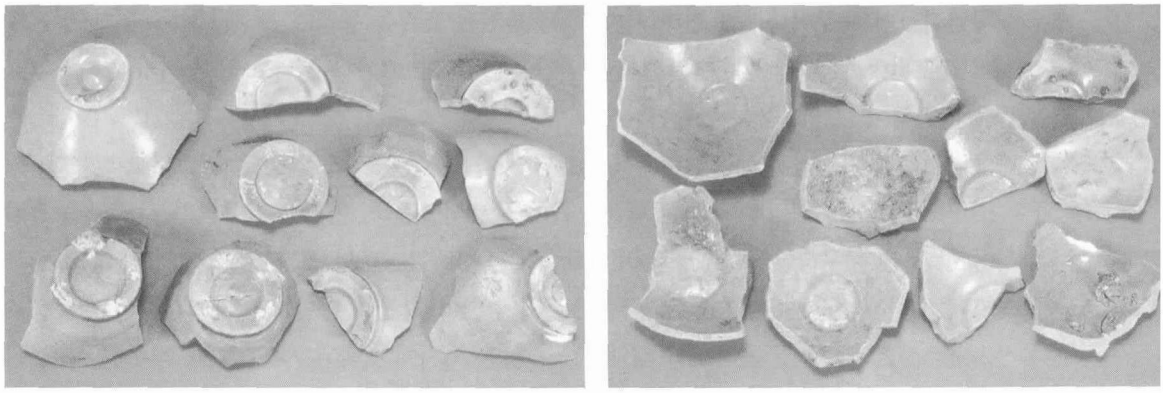
17 鄭明鎬 · 尹龍二, 앞의 책, p.132.

18 위의 책, p.157.

19 龍溪里窯址에서의 해무리굽碗의 출토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 제IV장 제2절을 참조하라.



도 3 龍溪里窯址에서 출토된 靑磁해무리굽碗片들. 左에서 두 번째 것은 內底曲面式이고 나머지는 內底圓刻式이다. 圓光大學校博物館



도 4 龍溪里窯址에서 출토된 內底圓刻式 靑磁해무리굽碗片들

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들이 모두 11세기 후반~12세기의 유적에서 출토된다는 점이다.[20] 즉 현재까지 11세기 중엽 이전의 유적에서는 해무리굽碗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그다지 컸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해무리굽碗들이

20 일본에서의 해무리굽碗의 출토 상황과 편년 문제에 대해서는 森本朝子 · 片山まび, 「博多出土の高麗 · 朝鮮陶磁の分類試案 生産地編年を視座として 」, 『博多研究會誌』 8(博多研究會, 2000); 山本信夫, 「九州地方出土の高麗青磁について」, 『海を渡つた翡色のやきもの－日本出土高麗青磁』(大阪市學藝員等共同研究實行委員會, 2001); 今井敦, 「日本出土の高麗青磁について」, 『海を渡つた翡色のやきもの－日本出土高麗青磁』(大阪市學藝員等共同研究實行委員會, 2001); 片山まび, 「北九州地域에서 出土된 高麗青磁에 대하여－初期資料에 관한 編年問題를 중심으로」, 『對外交涉으로 본 高麗青磁』(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3)를 참조하라.

거의 다 11세기 후반-12세기경에 제작된 중국의 백자들과 함께 출토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21] 해무리굽碗과 중국 백자 가운데 유독 전자의 경우만 큰 시간적 격차를 인정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해무리굽碗의 하한은 대략 11세기 말경—경우에 따라서는 12세기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겠지만—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22]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이 11세기 말경까지 제작되었다면, 적어도 龍溪里窯가 이 시기까지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이는 "太平壬戌"銘 瓦片이 출토된 南便建物址와 東便I建物址의 건물이 龍溪里窯가 운영되던 시기에 그 窯와 관련하여 축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太平壬戌"銘 瓦片이 龍溪里窯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編年資料라는 점과, 龍溪里窯가 太平 壬戌年(1022)을 전후한 시기에 운영되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太平壬戌"銘 瓦片과 龍溪里窯의 관계와 관련하여 과연 太平 壬戌年(1022)이 龍溪里窯의 전체 운영 기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제까지 여러 학자들은 이 점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초기청자의 전개과정에 대한 年代觀에 견주거나 또는 별다른 논의 없이 太平 壬戌年(1022)을 龍溪里窯의 초기 단계로 이해하였다.[23] 과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하였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명의 열쇠는 "太平壬戌"銘 瓦片의 출토 상황이 쥐고 있다고 판단된다.[2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龍溪里窯址에 인접해 있는 垈地에서는 여러 개의 건물지가 層位를 달리하여 확인되었다. "太平壬戌"銘 瓦片이 출토된 南便建物址와 東便I建物址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보다 이른 시기의 건물지는 南便建物址와 東便I建物址의 담장 石列의 下層에서 확인되었다. 그것이 龍溪里窯의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東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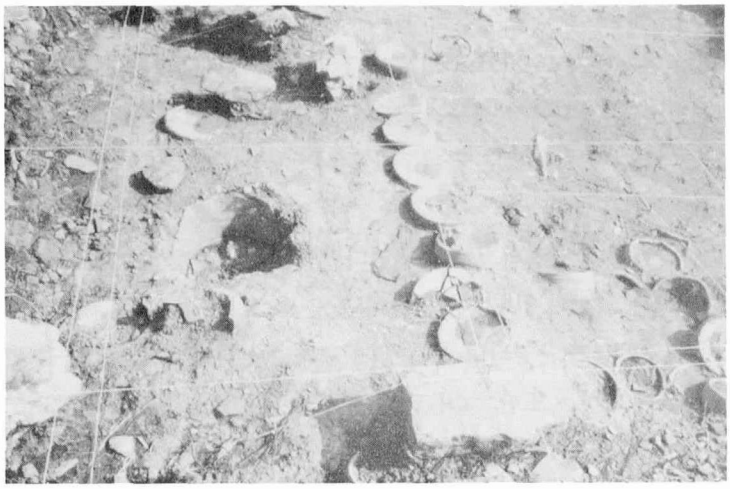
---

21 今井敦, 앞의 논문, p.8 참조.

22 이와 같은 해무리굽碗의 소멸시기에 대한 견해는 이미 尹龍二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며(尹龍二, 「高麗靑瓷의 起源과 發展」, 『韓國美術史의 現況』(圖書出版 藝耕, 1992); 『韓國陶瓷史硏究』(文藝出版社, 1993), p.158), 최근 張南原 · 李鍾玟 · 片山まび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해무리굽碗의 編年觀을 제시하였다(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硏究』(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3), pp.201-202; 李鍾玟, 앞의 논문, p.181; 片山まび, 앞의 논문, pp.48-51).

23 尹龍二, 앞의 논문, p.154, 「韓國靑瓷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高麗美術館館報』 50(財團法人高麗美術館, 2001), p.13; 李鍾玟, 앞의 논문, pp.165-166 및 p.181 참조.

24 "太平壬戌"銘 瓦片의 출토 상황은 鄭明鎬 · 尹龍二, 앞의 책, p.157 참조.



도 5 東便II建物址에서의 匣鉢의 노출 상태

II建物址이다. 이 건물의 건축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上層에 세워진 南便建物과 東便I建物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게다가 양자가 層位上으로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은 양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東便II建物도 龍溪里窯의 가장 初期段階에 築造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건물의 建築材로서 匣鉢을 사용한 점에서 볼 때 도5, 東便II建物은 龍溪里窯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던 시기에 축조되었음이 분명하다. 바꾸어 말하면 龍溪里窯의 開窯는 그러한 東便II建物이 축조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컨대 龍溪里窯는 1022년 이전에 축조된 南便建物과 東便I建物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는 東便II建物보다도 더욱 이른 시기에 開窯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龍溪里窯가 1022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을 중시하고 아울러 龍溪里窯가 11세기 말경—경우에 따라서는 12세기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까지는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太平 壬戌年(1022)은 龍溪里窯의 전체 운영시기 가운데 개요 초기단계보다는 오히려 중반부에 가까워가는 시기에 해당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도 6 벽돌편이 수습된 가장 북쪽의 퇴적 구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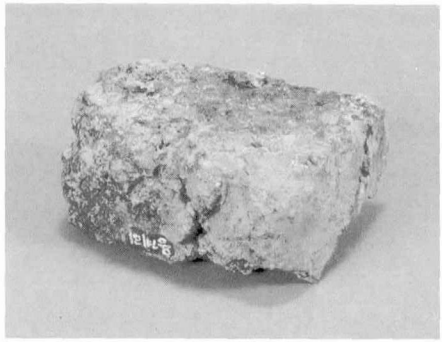
Ⅲ. 龍溪里窯에서의 塼築窯의 實在 여부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갈리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나 龍溪里窯의 경우처럼 특정한 遺構의 實在 與否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龍溪里窯址를 발굴할 당시만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塼築窯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과의 未修交로 말미암아 월주요의 塼築窯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실정을 염두에 두면, 龍溪里窯址에서의 塼築窯 遺構의 실재 여부에 대한 견해가 갈려 있는 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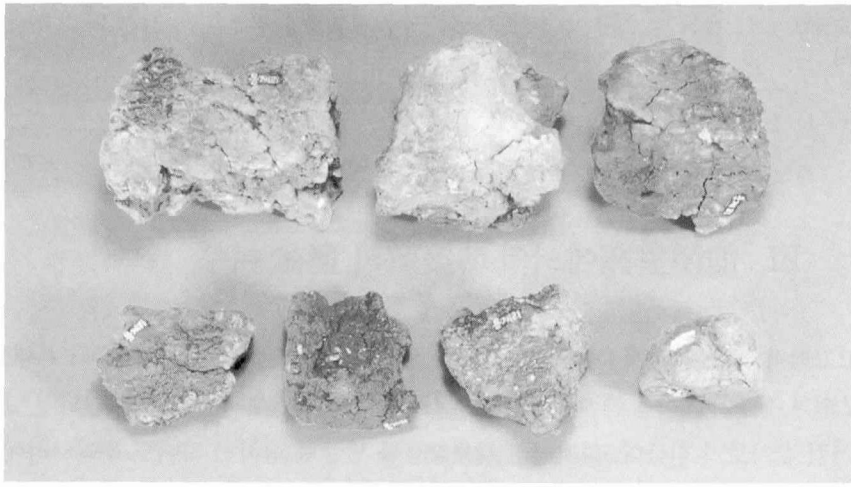
사실 이 점은 龍溪里窯址를 再發掘해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塼築窯 遺構의 실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거의 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셈이다. 그 지름길은 龍溪里窯址에서 塼築窯를 築造할 때 사용하던 方形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 龍溪里窯址를 조사하였다. 물론 地表調査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네 개의 퇴적 구릉 가운데 가장 북쪽의 구릉에서 方形塼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여러 점 발견하였다 도6.

그 가운데 한 파편은 方形塼을 만드는 耐火粘土로 만들어졌는데, 네 면이 인공적으로



도 7 龍溪里窯址에서 수습된 벽돌편



도 8 龍溪里窯址에서 수습된 벽돌편들

평평하게 만들어진 점으로 미루어 틀로 찍어낸 方形塼의 파편임이 거의 확실하다도7.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깨진 長方形 벽돌의 한쪽 끝 모서리 부분으로 보인다. 평평한 면들은 여러 차례 불을 맞아서 琉璃質化되어 짙은 암갈색으로 변해 있고, 나머지 면들은 불을 덜 맞아서 연한 암갈색을 띠고 있으며, 불규칙하게 깨지고 여러 곳이 갈라져 있다. 이는 가마의 壁體를 쌓은 벽돌의 파편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 파편의 현상으로 미루어 본래의 方形塼의 두께는 약 7.5cm 정도로 추정되는데, 始興市 芳山大窯에서 출토된 方形塼의 경우도 두께가 7-8cm 정도인 것들이 많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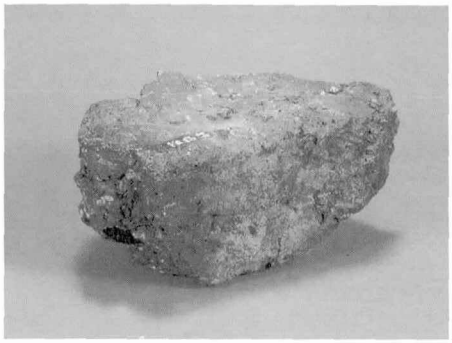
25 崔健 · 李鍾玟 · 張起熏, 앞의 책, p.149 참조.

도 9 盤巖里窯址의 遠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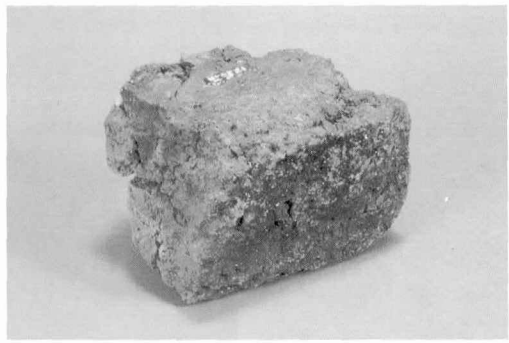
나머지 파편들은 더욱 심하게 깨지고 크고 작은 균열이 가서 벽돌의 原形을 거의 잃었지만도8, 이것이 窯址에서 흔히 발견되는, 흙으로 쌓은 가마 壁體의 파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벽체의 파편들은 일반적으로 형체가 不定形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面이 평평하지 않으며 凹凸이 심하고 불규칙하여 벽돌편과 쉽게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이 파편들은 1-3면이 평평하여 方形塼의 파편임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다.[26] 다만 앞서의 파편과 다른 점은 불을 덜 맞은 면이 옅은 암갈색이 아니라 연한 황갈색을 띤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方形塼을 만든 耐火粘土의 성분이 서로 다르거나, 쌓인 위치의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온도의 불에 노출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된다.

方形塼의 파편들은 龍溪里窯址와 至近거리에 있는 盤巖里窯址에서도 확인된다도9. 盤巖里窯址는 龍溪里窯址로부터 서북쪽 방향으로 野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약 1.5km 떨어진 高敞郡 雅山面 盤巖里에 위치하고 있다. 이 窯址는 龍溪里窯址의 경우보다는 약간 작은 세

26 경우에 따라서 이 파편들이 土棒이나 石材의 파편들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芳山大窯의 窯址에서 발견된 바 있는 土棒은 四角 기둥의 형태로, 용도는 불명확하지만, 표면에 점토와 모래 등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마 안에서 갑발을 받치거나 벽체를 보완하던 용구로 추정된다(崔健 · 李鍾玟 · 張起悉, 앞의 책, p.148). 하지만 土棒의 경우는 두께가 4cm 정도로 方形塼에 비해 얇아서 쉽게 구별된다. 그리고 石材는 특히 土築窯를 축조할 때 흔히 사용되는데, 깨진 면이 일반적으로 벽돌의 경우처럼 불규칙하지 않고 평평하며, 아울러 구조도 치밀하여 벽돌과 쉽게 구별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파편들이 土棒이나 석재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도 10 盤巖里窯址에서 수습된 벽돌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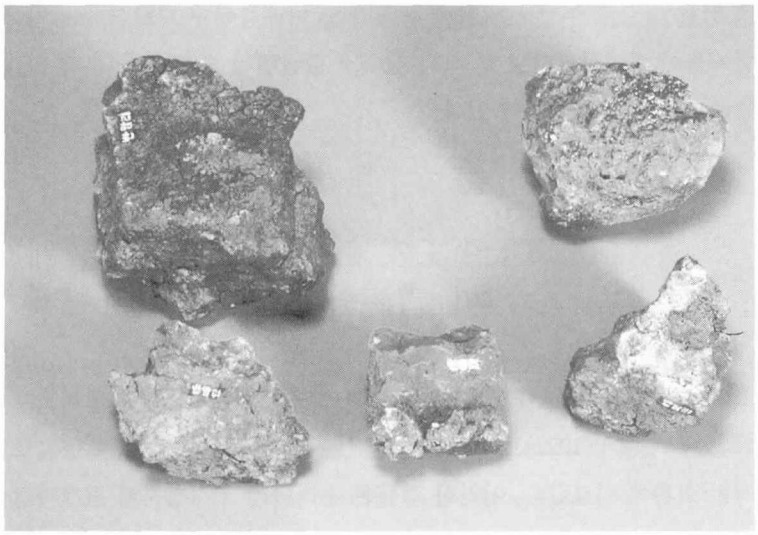
도 11 盤巖里窯址에서 수습된 벽돌편(2)

개의 가마 폐기물 퇴적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토되는 靑磁片뿐만 아니라 匣鉢을 비롯한 窯道具의 유형이 龍溪里窯의 경우와 거의 흡사하다.[27] 이 점으로 미루어 盤巖里窯와 龍溪里窯는 동일한 계통의 窯의 영향 아래 동일한 시기에 開窯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운영된 거의 같은 성격의 窯들로 판단된다.

필자는 최근 盤巖里窯址에서도 여러 점의 方形塼 자료들을 수습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점은 거친 모래가 섞인 耐火粘土로 제작되었으며, 세 면이 평평하여 一見하여 長方形 벽돌의 파편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도10. 평평한 면들은 불을 맞아 군데군데 琉璃質化되었으며, 경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일반적인 벽돌 파편의 경우 그 내부가 황갈색을 띠고 있는 반면에, 이 파편의 경우는 암갈색에 가깝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마도 耐火粘土의 성분이 달랐거나, 여러 방향에서 불을 맞은 관계로 磁質化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된다. 두께는 약 7cm 정도이다.

또 한 점의 파편은 앞서 언급한 파편보다는 덜 분명하지만, 네 면—경우에 따라서는 다섯 면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다—이 평평하여 方形塼의 파편임을 인식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도11. 長方形 벽돌의 한쪽 끝 부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파편 역시 거친 모래가 섞인 耐火粘土로 만들어졌는데, 龍溪里窯址에서 발견된 파편들과 마찬가지로, 한쪽 면은 琉璃質化되어 암갈색을 띠고 있고 있는 반면 그 반대 면은 황갈색을 띠고

27 尹龍二, 「高麗陶瓷窯址의 硏究」, 『考古美術』 171 · 172(韓國美術史學會, 1986); 『韓國陶瓷史硏究』(文藝出版社, 1993), pp.252-253 참조.



도 12 盤巖里窯址에서 수습된 벽돌편들

있으며, 부분적으로 깨지고 여러 곳이 갈라져 있다. 너비는 약 9.5cm이고 두께는 약 7cm이다. 盤巖里窯址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方形塼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크고 작은 파편들이 더러 발견된다도12.

龍溪里窯址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盤巖里窯址에서도 方形塼의 파편들이 수습됨으로서 이제 龍溪里窯에 일정 기간 塼築窯가 實在했으리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고 믿는다. 그런데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지에서는 方形塼의 파편들이 흔하게 발견된다. 이에 반해 龍溪里窯址의 경우는 매우 희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28] 그것은 전자가 開窯에서 廢窯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塼築窯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改築한 반면, 후자는 塼築窯로 開窯하여 곧 土築窯로 전환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전환을 꾀한 대표적인 窯로서 龍仁市 西里窯와 驪州郡 中岩里窯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方形塼이나 그 파편들이 발견되는 빈도로 미루어 龍溪里窯의 경우가 西里窯나 中岩里窯의 경우보다 塼築窯를 운용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龍溪里窯에서 塼築窯로부터 土築窯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龍溪里窯址에서 塼築窯의 遺構는, 필자가 벽돌편을 확인한 가장 북쪽 퇴적 구릉과 인접한 퇴적 구릉 사이

28 이 점은 盤巖里窯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 遺構의 맨 아래층에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확인하였다고 한 바와 같이,[29] 발굴된 土築窯 가운데 맨 아래에 위치한 가마C의 下層에도 實在할 가능성이 있다.

Ⅳ. "太平壬戌"銘 瓦片과 塼築窯가 제기하는 初期靑磁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우리는 앞서 "太平壬戌"銘 瓦片과 그 출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龍溪里窯가 太平 壬戌年(1022)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에 開窯하였고, 塼築窯로 窯業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1. "太平壬戌"銘 瓦片과 해무리굽碗 문제

해무리굽碗이 초기청자의 가장 대표적인 標識的 유물이라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개시시기와 전개과정 등 초기청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들은 해무리굽碗을 주요 토대로 하여 연구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해무리굽碗에 편중된 초기청자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무리굽碗이 초기청자의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30]

해무리굽碗의 출현 시기와 계통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康津窯를 비롯한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의 경우 가장 이른 시기의 해무리굽碗은 內底面이 曲面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內底曲面式이고, 이러한 유형이 뒤에 내저면의 중앙부에 圓刻이 있는 內底圓刻式으로 변화되어간다는 사실이

29 崔健, 앞의 논문, pp.276-277의 註 11 참조.

30 李喜寬, 「韓國 初期靑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ㅡ韓國 靑磁製作의 開始時期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美術史學硏究』 237(韓國美術史學會, 2003), pp.6-9.

다.[31] 이 점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해무리굽碗 연구가 거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內底曲面式에서 內底圓刻式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하는 점은 의연히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남서부지방의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과 중서부지방의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과의 관계 역시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太平壬戌"銘 瓦片이 이러한 의문점들을 푸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믿는다.

龍溪里窯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해무리굽碗들이 출토되었다도4 참조. 해무리굽碗의 가장 큰 특징인 굽폭의 크기와 그것이 底徑에서 차지하는 비율(굽폭/저경)도 한결같지 않다. 굽폭이 1.5cm에 가까운 넓은 것이 있는 반면, 0.5cm를 약간 상회하는 輪形底와 해무리굽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다. 굽폭/저경의 값도 0.10을 전후한 것으로부터 0.25를 전후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32] 한편, 이제까지는 龍溪里窯址에서 출토된 해무리굽碗에서 內底曲面式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33]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그 대부분이 內底圓刻式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도 극소수 포함되어 있었다도3 참조.[34] 이들은 저경이 6.0-6.5cm 정도로 비교적 크고, 굽폭도 1.2-1.3cm 정도로 넓으며, 굽폭/저경의 값도 0.20 이상으로 큰 편이다.[35] 이와 같은 유형은 남서부지방의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 가운데 늦은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6] 그렇다면 적어도 해무리굽碗의 출토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龍溪里窯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에서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으로의 변환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開窯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당연히 그러한 변화가 시작된 시점, 즉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이 출현한 시점은 그보다 약간 이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해무리굽碗과 관련된 첫 번째 의문, 즉 남서부지방의 해무리굽碗이 內底曲面式에서 內底圓刻式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하는 점은 곧 龍溪里窯의 開窯시기를 밝힘으

31 이러한 견해는 龍仁市 西里窯址 퇴적층의 下層(I · II 期層)에서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들이, 上層(III · IV 期層)에서는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들이 출토됨으로써 거의 定說로 굳어졌다.

32 앞서 제시한 도6을 참조하라.

33 崔健, 「韓國初期青磁の分類と變遷－窯址出土品を中心に」, 『東洋陶磁』 22(東洋陶磁學會, 1994), p.48; 李鍾玟, 앞의 논문, p.147 참조.

34 본고 제II장 참조.

35 앞서 제시한 도5에 보이는 해무리굽碗 가운데 중앙에 있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을 참조하라.

36 崔健, 앞의 논문(1994), p.46; 李鍾玟, 앞의 논문, p.162-165 참조.

로써 어느 정도 그 해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 변화는 龍溪里窯의 開窯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開窯 시점에서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여러 학자들은 "太平壬戌"銘 瓦片 등을 주요 근거로 하여 龍溪里窯의 開窯시기를 11세기 1/4분기—물론 1022년 이전—로 파악하였다.[37] 말하자면 그들은 "太平壬戌"銘 瓦片을 龍溪里窯의 初期 編年資料로 파악한 셈이다. 하지만 "太平壬戌"銘 瓦片은 龍溪里窯가 11세기 1/4분기에 속하는 1022년경에 이미 운영되고 있었음을 말해줄 뿐, 그 시기에 開窯하였다는 사실까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太平壬戌"銘 瓦片의 출토 상황 등을 통하여 볼 때 龍溪里窯는 1022년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부터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龍溪里窯는 1022년 이전에 축조된 南便建物과 東便I建物뿐만 아니라 그보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선 것으로 판단되는 東便II建物이 축조되기 이전에 이미 開窯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8] 이 점에서 볼 때, 龍溪里窯는 1022년의 직전에 해당하는 11세기 1/4분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앞서는 10세기 후반경의 어느 때에 開窯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믿는다.

남서부지방의 해무리굽碗이 內底曲面式에서 內底圓刻式으로 변화가 대체로 龍溪里窯의 開窯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開窯 시점에서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변화의 시기도 10세기 후반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앞서 제기한 해무리굽碗과 관련된 두 번째 의문, 즉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남서부지방의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과 중서부지방의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과의 관계가 어떠하였을까 하는 점을 밝히는 데 직접적인 단서가 된다.

일부 학자는 남서부지방과 중서부지방의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 소멸되면서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이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39] 이러한 이해는 남서부지방의 경우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므로 여기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중서부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는 10세기 2/4분기경에 開窯하고부터 10세기 말-11세기 초기에 소멸할 때까지 줄곧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을 제작한 것으

37 尹龍二, 앞의 논문(1993), p.154; 앞의 논문(2001), p.13; 李鍾玟, 앞의 논문, pp.165-166 및 p.181 참조.

38 본고 제II장 참조.

39 尹龍二, 앞의 논문(2001), p.13. 단정지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李鍾玟도 넓은 의미에서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李鍾玟, 앞의 논문, pp.179-181 및 p.191).

로 파악된다. 남서부지방의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이 10세기 후반경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록 중서부지방의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 이것보다 먼저 생산되기 시작했지만, 양자는 10세기 후반경의 어느 때로부터 10세기 말기-11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窯를 달리하여—즉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은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은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竝列的으로 생산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2. 龍溪里窯의 塼築窯의 系統 문제

우리는 앞서의 검토를 통하여 龍溪里窯가 塼築窯로 窯業을 시작하여 곧 土築窯로 전환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龍溪里窯가 어느 窯의 영향으로 窯業을 개시하였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다. 이 점을 해명하는 것은 龍溪里窯의 塼築窯가 어느 塼築窯의 계통을 이은 것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일과 相通하는 것이기도 하다.

塼築窯에서 土築窯로 전환한 대표적인 窯로 龍仁市 西里窯가 있다. 그리고 驪州郡 中岩里窯도 그러한 例에 속한다. 이들 窯에 축조된 塼築窯가 중서부지방 塼築窯의 계통이라는 데에는 異論이 없다. 이 점을 중시하면, 龍溪里窯의 경우도 중서부지방의 어느 塼築窯의 영향으로 開窯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일지 모른다.[40] 하지만 이 점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龍溪里窯에서 생산된 청자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별히는 開窯 초기의 양상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龍溪里窯가 중서부지방의 어느 初期靑磁窯의 영향으로 塼築窯를 축조하였다면, 의당 그것의 축조와 더불어 생산하기 시작한 청자의 양상 역시 영향을 미친 窯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龍溪里窯에서 제작된 청자의 양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標識的인 유물은 해무

---

40 혹 龍溪里窯의 塼築窯가 越州窯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龍溪里窯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해무리굽碗이 이 시기의 월주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실제에 있어서 그러했을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을 것이다. 월주요에서 이 시기에 제작된 碗들은 하나같이 輪形底(圈足)를 가지고 있다. 謝純龍, 「上林湖地區的靑瓷分期」, 『東方博物』 제4집(浙江大學出版社, 1999), p.92; 慈溪市博物館 編, 『上林湖越窯』(科學出版社, 2002), pp.102-110;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 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pp.347-3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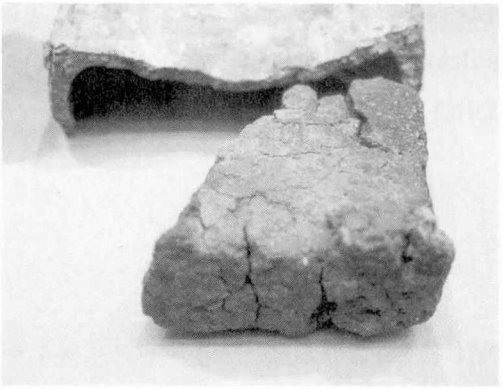
리굽碗이다도3.4 참조. 龍溪里窯址에서는 많은 해무리굽碗들이 출토되었다. 아마도 단일 器種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들은 굽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과 다양한 크기의 굽폭을 가진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극소수이고, 그 대부분은 후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龍溪里窯址에서는 內底曲面式이면서 굽폭이 전형적인 해무리굽碗의 그것보다 좁은 유형—이제까지 흔히 '先해무리굽碗'으로 불러온 유형—이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경우는 開窯부터 廢窯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출토된다.[41] 만약 龍溪里窯가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다면, 의당 龍溪里窯址에서도 이른바 先해무리굽碗 유형의 청자들이 출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龍溪里窯址에서 '先해무리굽碗'의 존재가 보고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龍溪里窯에서 '先해무리굽碗'을 제작하였으나, 그 양이 매우 적거나 발굴상의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미처 주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사실 龍溪里窯址의 경우 발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퇴적층의 층위나 출토 유물들의 유형 및 변화 양상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가능성은 龍溪里窯址의 再發掘이나 출토 유물의 再分析 등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龍溪里窯가 중서부지방의 塼築窯가 아닌 다른 窯의 영향으로 開窯했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과 관련하여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龍溪里窯址에서 출토된 해무리굽碗들은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지에서 흔히 출토되는 유형의 것들이다. 굽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들은 康津郡 龍雲里 63號窯址와 9號窯址, 三興里 2·3·4號窯址, 高興郡 雲垈里 靑磁 1號窯址, 長興郡 豊吉里窯址, 海南郡 新德里 D地區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內底圓刻이 있는 해무리굽碗들은,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지에서는 예외 없이 출토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가장 標識的인 유물인 해무리굽碗을 통하여 볼 때, 龍溪里窯가 남서부지방의 어느 초기청자요의 영향으로 開窯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아직까지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 塼築窯가 運用되었음을 확인시켜줄 수

41 崔健 · 李鍾玟 · 張起熏, 앞의 책, pp.65-66 및 p.98.



도 13 康津窯에서 수습된 벽돌편, 康津靑磁資料博物館

있는 자료가 보고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까지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 가운데 제한적으로 발굴된 龍雲里 10號窯와 三興里窯 등이 土築窯를 운용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막연히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가 처음부터 土築窯를 운용하였을 것으로 파악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는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窯라고 여겨지는 龍雲里 63號窯나 豊吉里窯 등을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것으로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 가운데 적어도 康津窯에서 塼築窯가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있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康津靑磁資料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그것은 直角二等邊三角기둥 모양의 벽돌편으로, 현재 강진청자자료박물관의 2층 전시실 窯道具 陳列欌에 전시되어 있다도13. 남아 있는 현상으로 미루어 이것은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지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正方形에 가까운 方形塼의 파편으로 판단된다. 이 方形塼의 파편은 1991-1992년 海剛陶磁美術館에서 康津窯를 精密地表調査할 때 수습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파편이 구체적으로 康津窯의 어느 窯址에서 수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康津窯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한 점의 벽돌편만을 근거로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도 塼築窯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든 일이다. 이를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벽돌편의 존재나 더 나아가 塼築窯의 窯構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남서부지방에 塼築窯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현 단계로서는 推論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더 많은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발굴이 이루어진 후에나 해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 초기청자 영역의 경계에 위치한 龍溪里窯의 계통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 초기청자의 전개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인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의 상호 영향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영향으로 開窯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힘든 형편이

다. 그것은 龍溪里窯와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에 대한 보다 깊은 조사—발굴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龍溪里窯에서 수습한 몇 개의 벽돌편은 바로 그러한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과의 관계와 龍溪里窯에서의 塼築窯의 實在 여부 문제를 검토하고 아울러 그 결과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龍溪里窯址와 인접한 建物址에서 출토된 "太平壬戌"銘 瓦片이 龍溪里窯의 編年資料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데 "太平壬戌"銘 瓦片의 출토 상황 등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이 瓦片이 출토된 건물지의 건물은 龍溪里窯가 운영되던 시기에 축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太平壬戌"銘 瓦片은 龍溪里窯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編年資料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太平 壬戌年(1022)은 龍溪里窯의 전체 운영기간에서 중반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龍溪里窯址의 발굴 결과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塼築窯의 실재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龍溪里窯址를 조사한 결과 거기에서 여러 개의 벽돌편을 수습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龍溪里窯가 開窯하고부터 일정 기간 동안 塼築窯를 운영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龍溪里窯址에서 발견되는 벽돌편이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기간은 용인시 西里窯나 여주군 中岩里窯 등과 비교하여 짧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전개과정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우선 "太平壬戌"銘 瓦片은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가장 대표적인 표식적 유물인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이 瓦片을 통하여 볼 때, 남서부지방의 해무리굽碗이 內底曲面式에서 內底圓刻式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10세기 후반경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 시기부터 10세기 말기-11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는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이,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 竝列的으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龍溪里窯가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으로

開窯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이 점은 龍溪里窯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와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에 대한 보다 많은 발굴이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주제어(key words) ___ 龍溪里窯(Yonggye-ri Kiln), "太平壬戌"銘 瓦片(A Broken Roof-tile with the Inscription "*Taepyeong Imsul*"), 塼築窯(Brick-built Kiln), 해무리굽碗(The Bowl with a Halo-shaped Foot), 初期靑磁窯(The Kilns of The Early Celadon)

투고일 2004년 8월 20일 | 심사일 2004년 10월 29일 | 심사완료일 2004년 11월 12일

국문초록

龍溪里窯址와 인접한 建物址에서 출토된 "太平壬戌"銘 瓦片이 龍溪里窯의 編年資料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데 "太平壬戌"銘 瓦片의 출토 상황 등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이 瓦片이 출토된 건물지의 건물은 龍溪里窯가 운영되던 시기에 축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太平壬戌"銘 瓦片은 龍溪里窯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編年資料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太平 壬戌年(1022)은 龍溪里窯의 전체 운영기간에서 중반부에 가까운 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龍溪里窯址의 발굴 결과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塼築窯의 실재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龍溪里窯址를 조사한 결과 거기에서 여러 개의 벽돌편을 수습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龍溪里窯가 開窯하고부터 일정 기간 동안 塼築窯를 운영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龍溪里窯址에서 발견되는 벽돌편이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기간은 용인시 西里窯나 여주군 中岩里窯 등과 비교하여 짧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전개과정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우선 "太平壬戌"銘 瓦片은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가장 대표적인 표식적 유물인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이 瓦片을 통하여 볼 때, 남서부지방의 해무리굽碗이 內底曲面式에서 內底圓刻式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10세기 후반경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 시기부터 10세기 말-11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는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이,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 竝列的으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龍溪里窯가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으로 開窯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이 점은 龍溪里窯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와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에 대한 보다 많은 발굴이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ABSTRACT

The Yonggye-ri Kiln Site, a Broken Roof-tile with the Inscription "*Taepyeong Imsul*" and a Brick Kiln

Lee Hee-gwan

A piece of broken roof tile with the inscription "*Taepyeong Imsul* (太平壬戌)," excavated at a structure adjacent to the Yonggye-ri kiln site, has been a source of continuous debate among scholars for its role in dating the site. With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site, however, it becomes evident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coincided with the active period of the kiln. In this respect, the broken roof tile with the inscription serves as an important key in dating the kiln. The cyclical year *Imsul* most likely refers to 1022 A.D. and marks the peak of the active period of the kiln.

Another issue of debate the excavation of the Yonggye-ri site has brought about lies in the question of the presence of a brick kiln. Careful investigations of the site led to the discovery of several brick fragments, which indicates that for a limited period following the opening of a kiln at Yonggye-ri brick kilns were in operation. But the scarcity of bricks found at the site suggests that its operation was relatively short when compared with those of Seo-ri kiln (西里窯) in Yongin and Jungam-ri kiln (中岩里窯) in Yeoju.

These results serve as pivotal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early Korean celadon. The broken roof tile with the inscription *Taepyeong Imsul* provides the first step to understanding the most representative type of early Korean celadon, the bowl with the so-called "halo-shaped foot." This roof tile enables us to

determine that the change from a circular type to a concave type in the inner bottom surface of a bowl with a halo-shaped foot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should be datable to the late 10th century. During the late 10th to the early 11th century, celadon kilns in the southwestern region produced bowls with a halo-shaped foot in a concave inner bottom surface, while those in the midwestern region produced bowls with a halo-shaped foot in a circular inner bottom surface.